



해외 단기선교철 세미나 개최

피랍인 사망소식에 위기대책 논의

예멘에서 피랍된 한국인 엄 모 씨(34·여)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신교계는 단기선교철을 앞두고 위기대책에 나서고 있다. 개신교계는 해마다 7-9월 여름 휴가철에 단기로 해외 선교 또는 봉사 여행을 떠나는 단기선교팀을 단체·교회별로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는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뎀교회 신자 23명이 납치돼 국민적 반감을 샀던 것을 비롯해 2009년 1월에는 개신교 봉사단체 '인터콥'이 정부가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국가로 봉사활동 및 단기선교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례들을 감안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7월 2-3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단기팀을 위한 위기 대처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KWMA 관계자는 "한국인 여성피랍, 사망과 관련해 교계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며 "여름 단기팀의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시집이 테러를 비롯한 위기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전국교회의 단기팀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KWMA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지원을 받아 단기팀의 위기 유형과 상황별 대처방안을 정리한 '단기팀 위기관리 이렇게 대처하라'는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인천세계도시축전 성시화운동

개신교계의 '선교의 장' 될까 우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개신교계의 선교의 장(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2009년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있다. 8월 7일-10일 25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박람회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삼열, 이하 기총)는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에 맞춰 체계적으로 성시축전 준비활동을 하고 있어 전국을 성시화하려는 의도가 내비쳐지고 있다.

공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인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성시화운동에 맞춰 구체적인 활동 지침 사항까지 만들었다. 인기총은 6월 국제기드온대회, 7월 CCC 전도요원 1만 명 인천 투입 등을 통해 10월 인천 세계성시축전을 준비하면서 개신교 자원을 총동원해 사랑·청년진로·사이버폭력·일부다처제·미혼모·마약·동성애 등에 대처하는 등 지역사회에 개신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종교편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계종종교차별위원회는 6월 6일 은해사에서 종교차별 권역별 교육을 첫 실시했다. 이어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2차 교육을 실시, 지역 종교편향 감시 네트워크를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은 기자

'독거노인 100만 시대'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이어져

외로움과 가난의 현실로 개종 선택... 불교계의 체계적인 복지포교 필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어르신들이 한 사람 복지센터에 모여 밀반찬꾸러미들을 챙기더니 하나 둘씩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달동네 지역이어서인지 골목길이 걷기에는 가파르지만 밀반찬 배달 봉사자 3년째 해온 임경호 어르신(80·북아현동)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임 어르신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니 생각한 것 보다 참담한 곳도 많았고 사회적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성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매주 우리를 기다리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있는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함께 배달봉사 하는 이재삼 어르신(67·북아현동)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월 2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용돈 벌이도 되고 보람도 있다"고 흐뭇해했다.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효사 효림원(원장 무규)에 소속된 봉사자들. 60세 이상인 65명의 어르신들은 매주 화, 금요일 108가구의 독거노인에게 밀반찬배달 및 반찬조리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 밖에 두 어르신잔치,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안부 묻기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독거노인 수는 98만 명, 전체 노인인구



서대문구 수효사 효림원의 어르신 봉사자가 독거어르신에게 밀반찬배달 봉사를 하는 모습. 효림원은 20여 년 동안 독거어르신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을 위해 지혜를 베풀어오고 있다.



효림원 환경자 주임은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일거리가 없는 분들인데 배달봉사활동으로 월 20만원을 벌 수 있어 용돈도 되고 다들 좋아한다"며 "어르신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만족감도 크다"고 설명했다.

의 18.8%를 차지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0년 독거노인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로 미뤄볼 때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만 17만 명에 달해 노인문제와 사회문제화 될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독거노인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효림원이 펼치는 밀반찬배달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밀반찬배달 서비스를 받는 김영주(75·여) 어르신은 "반찬이 참 맛있다. 시장에 안 가도 경제적으로도 도움 되고 좋다"고 말했다. 한은생(82·여) 어르신은 "다

리가 불편해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데 반찬도 주고 도와줘서 너무 좋고 봉사자들이 수고가 많다"며 고마워했다.

효림원 환경자 주임은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일거리가 없는 분들인데 배달봉사활동으로 월 20만원을 벌 수 있어 용돈도 되고 다들 좋아한다"며 "어르신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만족감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제화)는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의 소득 보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불만 사항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효림원의 봉사자 어르신은 "노인일 자리를 등록하면 1년 동안 복지부에 등록되는데 7개월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은 자원봉사를 해야한다"며 "용돈벌이보다 생계를 위해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급여 지급기간을 늘렸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불교계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포교활동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독거노인 7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 지역은 개신교가 타 지역보다 오래전에 뿌리내린 곳이기도 하다. 이곳 일대가 대부분의

개신교 복지계가 장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대문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불교계 복지시설인 효림원이 주2회 배달봉사를 한다면 개신교 복지단체들은 주5회를 하는 식이다.

효림원 관계자는 "목사님과 신도들이 조직을 만들어 직접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지역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개신교 신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계의 관심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효림원 관계자는 "노령인구 중 상당수가 불교를 종교로 여기고 있지만 사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신행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자연스레 조직적으로 왕성하게 선교활동하는 이웃종교로 개종하게 된다"며 "사찰에서 외형적인 봉사나 행사보다는 외롭고 힘든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모셔오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가난이라는 현실로 개종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 때일수록 스님과 신도가 자리아타(自利利他)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포교가 필요할 때다.

이나은 기자 bohying@buddhapia.com

실버문화벨트 노인문화 사업 본격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전문상담센터 개소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이하 복지센터)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문화벨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노인문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센터는 서울시 新 노인정책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 전문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상담센터는 노인 인권 보호 및 노년의 다양한 고민해결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02-723-9988)을 실시하며 상담 내용으로는 △생활지원상담(노년 경제적 생활안정) △심리상담(우울·불안·자살생각) △성상담(부부생활 및 성관련) △학대 상담 △소비자피해사례 상담과 같은 전문 연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섭 스님은 "노인문화의 중심인 종로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어르신 전문 상담센터를 개소해 어르신 중심의 편안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열린 상담센터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센터는 노인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6월 13일 교동초등학교에서 '9988 추억의 운동회'를 16일에는 종로 운현궁에서 '노락당(老樂堂) 과거제'를 열었다. 이 밖에도 복지센터 부설기관인 서울시 노인취업훈련센터(02-6911-9583)에서는 6월 17일-7월 3일 2주간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나은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불자연예인 김병조, 김혜옥씨 위촉

코미디언 김병조 씨와 탤런트 김혜옥 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6월 18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3년 동안 홍보활동에 전념하게 될 두 사람은 홍보대사 승낙서 서명을 한 뒤 정기기증 신청서를 작성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이나은기자



왼편부터 김혜옥 씨, 일면 스님, 김병조 씨.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은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차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판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법

글·백초스님
상·하권/720면/정가 각20,000

심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 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떨어 예약가능)